

기아차 “카니발 타고 아이들과 즐거움 찾아가요” 언택트로 사라지는 일자리

4세대 카니발 출시 기념 사회공헌
놀이공감키트 전달·놀이활동 진행

기아자동차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이색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기아차는 4세대 카니발 출시를 기념해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굿네이버스와 손잡고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기아차는 패밀리카라는 카니발의 이미지에 걸맞게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놀이공감 키트’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놀이 공간이 줄어든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에 나선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든든한 아빠차,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동차’라는 카니발의 이미지에 걸맞게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강원도와 전남 지역 아동 830명에게 잘함



기아차가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 출시 기념 이색 사회공헌 활동 나선다. /기아자동차

놀이와 보드게임, 미니블록, 컬러링북 등으로 구성된 ‘놀이 공감 키트’를 포함해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키보드와 드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진행한다.

또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진행하는 ‘그린라이트 키즈’ 캠페인을 통해 저학년 대상 교통안전 키트를 전달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지 수첩
채윤정
(산업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최근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은 향후 5년간 58조원이 투입될 계획이어서, 인공지능(AI) 등 IT 기업들은 벌써부터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내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개최된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 기자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데이터·5G(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는 물론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많은 신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하지만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 같은 기술에 대한 궁금증 대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그 대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일자리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비대면 기술을 주도하는 AI 및 로봇업체에서도 ‘언택트’ 현상으로 제품 공급이 본격화되면 서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한편

으로는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한 AI 기업 대표는 “AI·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면서 장년층 등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를 항상 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새 일자리가 필요한 데 데이터 가공 작업을 대중에 개방하는 ‘클라우드소싱’과 같은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클라우드소싱 작업자 중 많게는 연 7000~8000만원까지 버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년간 160조원을 투자해 이 같은 신규 일자리를 190만 개나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건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자리 변화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큰 변화로 AI·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언택트, 한국판 뉴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정부는 그에 앞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다. /echo@

포스코인터, ESG 정보 강화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ESG 정보를 대폭 강화한 ‘2019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이어 이번 기업시민보고서에도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주요성과를 활동영역(Business, Society, People)별로 구분해 하이라이트로 다뤘으며, ‘2019 ESG 우수기업 대상’,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 CSR 최우수상’ 등 ‘기업시



민’으로서 국내외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내용도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했다. 또 모든 주요성과를 UN SDGs지표와 연결해 제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부각하고, 이를 또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활동영역과 매칭한 점이 돋보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처음으로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국제 사회의 요구에도 적극 부응했다. 특히 다양한 사업을 하는 상사(業)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장비 및 제품 산업’ 표준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다뤄 주목을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운세 8월 3일 (음 6월 14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건강에 좋다. 48년생 자식승진에 고생한 보람을 찾는다. 60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 72년생 꿈이 큰 만큼 실망도 크다. 84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주니 동료에게도 최선을 다하라.

말
42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들어온다. 54년생 횡재수가 있거나 자손에게 좋은 일이 있다. 66년생 서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78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시작. 90년생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날아간다.

양
37년생 인생이 고달프고 휴식이 없다. 49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 61년생 과한 운동을 피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 73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특히 대화에 주의. 85년생 재미구멍 하나라도 독은 무너진다.

양
43년생 만인이 부러워하나 내게는 쓸모없는 것. 55년생 욕심이 과해서 탈이 난다. 67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9년생 남에게 베푼 선행이 내게로 돌아온다. 91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니지.

원숭이
44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56년생 모든 일을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68년생 무더위가 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8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도 좋은 방법. 92년생 흐르는 대로 버려두면 절로 굴러간다.

닭
45년생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57년생 지나친 운동이 몸을 더 해친다. 69년생 작은 먼지에 눈물 날 일이 있다. 81년생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챙긴다. 93년생 조상님의 제사에 보답하는 하루를 보내라.

돼지
46년생 어제의 어려움이 오늘의 결과를 좋게 한다. 58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체크. 70년생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 82년생 장거리 여행을 나설 일이 생긴다. 94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지인에게 말조심을 하자.

돼지
47년생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다. 59년생 말을 줄여야 어른 대접을 받는다. 71년생 경관이 수려하나 내가 실 곳은 아니다. 83년생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곳이 생긴다. 95년생 퇴근시간 의지 하던 상사의 부음이 들린다.



김상희의四季 풍수의 조건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직장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회사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방법은 업무실적이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인성이나 근무 태도 역시 보이지 않는 잣대가 된다. 관리자들의 말에 의하면 간단하고 유용한 평가 지표가 있다고 한다. 평소에 책상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면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책상이 너저분하고 어지러운 사람은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반면에 책상 정리를 잘하고 깔끔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는 게 통일된 의견이다.

단순히 책상 정리 하나로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집안 풍수의 중요성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가구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기 마련이다. 복이 들어오는 방향을 찾아 바꾸는 것이다. 식물이나 거울을 필요한 곳에 들여놓기도 한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는 그것만으로도 발복하는 풍수 인테리어가 됐다고 판단하겠으나 복이 들어오는 방향과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고 보기 좋게 유지하는 것이다. 좋은 기가 드나드는 현관은 들고나는데 걸리는 게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현관에 이것저것 쌓아놓으면 좋은 기운이 막히기 마련이다. 거실과 부엌 역시 마찬가지이다. 발복의 방향과 위치를 찾아 가구를 배치했으면 주변을 깔끔하게 만들어야 한다. 깨끗함은 좋은 풍수 인테리어의 우선 조건이다. 부자의 집이 지지부진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책상 정리를 잘해놓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좋은 직원이라는 판단은 틀리지 않다. 그게 뭐 중요하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3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5	4			
1	7	3	6		4
	6			1	8
4		2	7		5
	3		★	2	
6	5	9		7	
2	9			8	
7		8	2	9	3
			1	7	4

9		4	8	C	3		5	
A		2			B			6
B	7	4			1			2
			8	B			6	
2	9	7			6			4
8			A				1	C
6	3				8			A
9			2			4	8	B
		5		9	7			
1			A			3	9	2
	C		7		4			B
	8		6	9	2	5		4

Z	H	E	L	6	8	5	9
E	9	6	Z	5	8	H	L
S	L	H	H	L	9	6	E
L	Z	H	6	E	5	Z	9
6	8	Z	L	H	E	L	5
9	5	E	L	8	Z	L	6
8	E	L	5	6	Z	9	H
H	6	5	9	Z	E	L	8
L	Z	9	8	H	L	5	6

H	L	V	S	Z	6	9	E	8	Z
8	8	9	S	H	L	6	V	Z	Z
Z	6	E	C	8	V	8	9	H	L
9	E	Z	L	Z	6	V	C	5	H
5	8	H	9	V	Z	E	C	L	6
6	V	C	L	8	8	5	L	Z	H
C	S	L	Z	6	L	E	V	8	H
8	H	V	L	9	C	S	Z	6	Z
E	6	L	9	Z	H	8	V	S	L
Z	C	E	8	V	L	9	6	H	5
L	9	H	6	8	5	L	Z	8	V
V	L	5	8	E	C	8	H	L	9

30%~50% 무료배송 알라딘 여름 취미 도서할인전 주말에 0원으로 구매가능 Yes24 주말 할인 쿠폰전 새로운 퍼즐 만들기 취미도서는 쿠팡로켓배송으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50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04호